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brary Management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전 재봉 (Jae-Bong Jeon)\*\*

#### 〈목 차〉

- |                 |                 |
|-----------------|-----------------|
| I. 서론           | 2. 시설규모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자료의 구성       |
| II. 이론적 배경      | 5. 자료의 이용       |
| 1. 사적 개관        | 6. 직원 현황        |
| 2. 자료의 유형       | 7. 직무 만족도       |
| 3. 시설 및 장비의 유형  | IV. 결론          |
| III. 실태 분석      |                 |
| 1. 도서관의 설치      |                 |

####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장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점자도서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한 후 본 연구자가 현장을 직접 모두 방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획득하였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provides the conceptual and practical framework on the strategy to enhance service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in the braille librarie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questionnaires, the interview, and the observation of the data collection techniques are used in the study, and the braille libraries throughout Korea which are in operation are selected as subjects for the research and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Most of the braille libraries, about 70%, are located in Seoul. It thus appears that this geographical unbalance cause the visually handicapped inconvenience in use, who is especially living at the regions where no braille library is located nearby.
2.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library service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first of all, the limited scope of the subject as well as the poor volume of the collections should be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3. Most of the libraries are neither equipped with necessary facilities to publish in braille nor secured the supporting instruments which facilitate to use library service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satisfactorily.
4. The collection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consist of the brailles and the recordings mainly. Because the visually handicapped is difficult to access and visit at the libraries alone, these materials are generally circulating rather outward by postal service than inward.
5. The qualified staff who has the very responsible position for reading and circulation is required to have educational background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have passion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and to have abilities to understand and translate the materials in braille.

\* 본 논문은 1995년도 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인권선언 제 27조 1항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즐기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였으며, 우리나라 헌법 제 3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였고, 심신 장애자 복지법 제 3조에 의하면 「심신 장애자는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상당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 4조에는 「심신 장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정신에 따라 장애인도 정상인과 동등하게 행복을 추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받아야하며, 복지사회의 건설을 추구하는 현대국가에서는 마땅히 보호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최저생활 보장이나 의료보장등 장애인 복지제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며, 장애인 복지수요의 수준이나 내용 또한 국민소득 수준과 비례하여 높아지고 다양해지고 있으나 복지정책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국가나 사회가 장애인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정상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의 재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정보자료에의 접근을 통한 기술의 습득이나 문화적 혜택의 부여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은 도서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그 정책이나 시설 그리고 봉사활동의 측면에서는 거의 소외된 상태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도서관계나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도 다른 주제 분야에 비하여 빈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장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정책의 방향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시각장애인들도 정상인들과 함께 도서관 문화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점자도서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지를 작성한 후 본 연구자가 현장을 직접 모두 방문하여 면담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의 실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대구대학교 부설 점자도서관을 모델로 선정하여 면담하였고, 기초조사의 면담에 응해준 직원들과 함께 본 연구의 질문지의 문항에 대한 내용과 용어들을 최종적으로 점검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질문지는 배경질문과 기본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배경질문의 구성은 번호를 고려하지 않고 조사대상기관의 일반적인 사항, 즉 도서관명칭, 설립년도, 도서관주소, 전화번호, 작성자직함을 파악하여 본 연구에 대한 분석의 기초로 하였으며, 기본적인 질문은 도서관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총 16개항으로 구성하여 1998년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국의 조사대상 도서관들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도서관으로서는 국소수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sup>1)</sup> 그밖에 점자도서관의 역할을 활발하게 펼치는 곳과 빈약하게나마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복지시설들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도서관들이 설립후의 봉사활동에 대한 실적평가를 할만큼 충분한 업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공공도서관 또한 점자도서관의 구성요소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조사 분석 대상 범위에는 공공도서관과 빈약하게 봉사하는 복지시설들을 제외하고 부록 1의 점자도서관으로 제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사적 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는 나무나 상아, 금속판에 정상인의 문자를 양각하여 맹인들이 만져서 읽도록 한 양각문자로부터 매듭문자, 침문자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의 문자가 로마시대 이래

1) 전재봉,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2, p. 75.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로 사용되었으나 근대 점자의 시작은 1825년 프랑스의 육군장교인 Barbier가 전장에서 사용하던 암호문자를 맹인교육에 응용한 11점식 점자를 발표함으로써 비롯되었다.<sup>2)</sup>

그후 Louis Braille은 Barbier 점자의 수직배열이 손가락 끝으로 만지기에 너무 높아서 해독에 불편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1829년에 현재의 6점식 점자를 발표하게 되었다. 6점식 점자는 6개의 점(종 3점, 횡 2점)을 위치나 조합을 달리하여 볼록 나오게 찍음으로써 촉각에 의한 해독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Braille의 6점식 점자는 보기 좋지 않고 보는 사람이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급에 상당히 저항을 받다가 사후 2년 뒤인 1854년에야 프랑스 맹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받아 들여 졌으며, 1878년에는 각국의 맹인교육자들이 맹교육에 사용키로 결의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sup>3)</sup>

한편, Louis Braille의 점자를 영국의 William Moon은 요철(凹凸) 문자시스템 즉, 촉각에 의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1881년에는 영국에서 최초의 전문잡지인 Brailles가 발행되었고, 1884년에는 음악의 악보를 점자화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858년에 맹인인쇄소(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가 설립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맹학교나 관련기관에 점자도서를 보급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그후 1890년에는 미국의 Hall이 점자 타자기와 아연판 제판인쇄기를 고안하여 점자도서의 제작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1904년 런던에서는 음악, 수학, 화학의 점자 표기법을 출판하였다.<sup>5)</sup>

이처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의 개발 및 보급과 함께 에디슨(Edison, Thomas Alva)에 의하여 발명된 축음기를 이용하여 녹음도서의 제작 및 보급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와 1929년에는 미국의 점자출판소에서 녹음도서를 레코드로 제작하기 시작하였으며, 1934년에 미국맹인재단(AFB)에서는 레코드판으로 제작한 도서를 Talking Book이라 하고 맹인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무료로 대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35년에는 영국맹인협회에서도 LP판으로 제작되기에 이르렀으며 특히 2차 대전 이후 카세트레코드의 출현은 맹인들의 독서세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sup>6)</sup>

한편, 일본에서는 1890년대에 와서 처음으로 Braille이 고안한 6점식 점자가 동경맹학교의 교사 이시카와 구라지(石川倉次)에 의하여 「일본 훈맹 점자」로 번안되어 1892년부터 일본 점자판으로 점자를 찍게되었고 1893년에는 점자인쇄가 시작되어 점자도서의 생산 및 보급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15년 동경맹학교와 동경맹인교육회, 1916년 동경시 本郷圖書館 등을

2) 김동년, 김태욱. 점자 발달의 과정. 대구, 한사대학 출판부, 1981, p. 21.

3) Jacobson. Barbara, *History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1895-1969*. M.S.Dissertation, Palmer Graduate Library School, (1971), p. 20.

4) Ibid, p. 40.

5) Ibid, p. 46.

6) 김동년, 김태욱, 전계서, p. 29.

시작으로 점자문고 수준의 점자도서 대출사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sup>7)</sup>

우리나라에서의 점자 및 점자출판의 시작은 평양에서 최초의 맹인교육을 실시한 R.H.Hall 여사가 1898년 뉴욕점자형을 본딴 한글점자인 조선훈맹점자를 만들어 성경의 일부와 십계명을 점역해 냄으로써 비롯되었다.<sup>8)</sup> 그후 1913년엔 조선총독부가 현재의 서울맹학교 전신인 제성원을 설립하여 점자를 사용하였다. 일제에 의해서 설립된 제생원 맹아부의 훈도이던 박두성 선생은 세계적으로 6점식 점자가 맹교육에 통용되는 것을 알고, 맹아부 학생들을 규합해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1921년 자음은 3개의 점, 모음은 2개의 점으로 구성된 3.2점식 점자를 발표하였다.<sup>9)</sup>

그러나 3.2점식 점자는 표기상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여 1926년에 현재 사용하는 한글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하면서 조선어 독본, 성경 등을 점역하여 보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된 점자도서를 처음으로 대출하기 시작한 것은 1935년 서울 맹학교였으며, 재학생과 동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sup>10)</sup>

그 후 1950년 한국국제맹인자문위원회가 전국 맹인을 대상으로 3,000여권의 점자도서를 우편으로 대출하였으며, 1952년 기독교 애린선교단의 맹인사업부 Light House에서 점자 인쇄술을 도입하여 Readers Digest를 점자도서로 간행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대출도 실시하였고,<sup>11)</sup> 1955년 성서공회는 신구약성서 전편을 점자로 출판하였으며, 1966년에 한국사회복지연합회 맹인복지위원회(현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점자도서를 출판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대출하였지만 모두 「점자도서관」 규모의 대출이 아니라 소규모의 문고 비슷한 것으로 도서의 종류나 권수가 크게 미약한 상태였다.<sup>12)</sup>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역사는 오랜 기반을 갖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 관한 기록은 1656년 영국의 St. John's 대학에 맹인 John Troughton이 입학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했다는 것이 처음이다.<sup>13)</sup> 영국에서 최초의 독립된 점자도서관은 국립맹인 도서관(National Library for the Blind)으로서 1882년에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에 미국에서는 필라델피아에 맹인무료대출도서관이 설립되어 독립된 점자도서관의 출현을 보게 되었다. 1895년에는 개인의 점자도서를 가지고 뉴욕맹인무료대출도서관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은 8년 후인 1903년에 설립한 뉴욕맹인도서관의 토대가 되었다.<sup>14)</sup>

7) 加藤善德, “日本點字圖書館 40年 をふり返つて”, 圖書館雜誌, vol.75, no.1, (1981.1), p. 12.

8) 김동년, 김태옥, 전계서, p. 30.

9) 상계서.

10) 상계서, p. 33.

11) 조종석, “한국의 맹인도서관 실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p. 15.

12) 상계서.

13) P. M. Judd, "The Library and Information Needs of Visually Handicapped Students : A Survey of the Problems with Some Suggestions for Academic Library Policy", *Journal of the Librarianship*, vol.9, no.2, (1997), p. 97.

##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1910년 맹인협회가 시각장애인 도서실을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그 후 1916년에 東京市本鄉圖書館, 1919년에 新潟圖書館에서 맹인을 위한 초보적 단계의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진 것을 필두로 하여 1927년에 石川縣立圖書館이 점자문고 수준의 도서관봉사를 실시하였다.

점자도서관으로 문을 연 최초의 것은 1940년 흠파 가즈오씨가 자기 소유의 점자도서 700권으로 시작한데서부터이다. 이 도서관이 현재의 「日本中央點字圖書館」으로서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로 한국점자도서관과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일본어 점자를 익힌 우리나라 맹인들도 이 도서관의 점자도서를 이용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수종의 월간잡지가 점자 또는 녹음테이프로 제작되어 일본 전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부되고 있다.<sup>15)</sup>

또한 일본은 1949년 「신체장애인복지법」의 공포로 점자도서관의 설치가 처음으로 법제화되었으며, 1954년에는 국가가 처음으로 점자도서 대출사업의 위탁비를 책정하여 일본 점자도서관에 위탁했다.<sup>16)</sup>

한편, 우리나라에서 점자도서관의 시초는 1960년에 설립된 한국맹인도서관이 처음이다. 한국맹인도서관은 6.25사변이후 많은 실명자들이 생겨나 맹인들에 대한 구호와 정착 그리고 교육을 목적으로 AFOB(현재의 HKI International)가 서울 수복이후 극동지역지부를 설치하였으나, 1957년 동지역 사무실이 마닐라로 옮김에 따라 AFOB가 한국에서의 맹인복지사업을 손떼게 되었다. 이에 전국에서 구호사업과 기독교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맹인자문위원회(Adviser committee for the blind in korea)를 조직하고 단체등록을 하여 점자도서를 제작, 대출하는 규모 있는 도서관 사업을 하였다.<sup>17)</sup> 그러나 위원회는 재정난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자 1968년에 해체가 되었고 소장하고 있던 점자도서 836권과 녹음도서 364개는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되어 대출을 계속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은 이를 재학생 및 전국의 맹인을 대상으로 대출 봉사를 해오다가 운영상의 애로로 1984년 6월에 소장자료(점자도서 1815권, 점자악보 1010, 점자잡지 42종, 음반 359장 등)를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 기증하였다.<sup>18)</sup>

그리하여 1970년대 이후부터는 특수도서관의 성격을 갖는 점자도서관의 설립을 통하여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그리고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는 도서관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1969년에는 맹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인 한국점자도서관이 세워졌으나 문을 연 후 1년 가까

14) Ibid.

15) 加藤善德, 前揭書, p. 13.

16) 상계서.

17) 조종석, 전계서, p. 15.

18) 상계서.

운 준비 끝에 1970년 9월부터 대출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성심병원 내에 설립되었던 점자도서실(1969년 설립)을 대한적십자사가 인수하여 1977년에 점자도서실을 개관하였다.

1981년 6월 1일에는 대구대학교 부설 점자도서관이 정부의 재정지원에 힘입어 국내 최대규모의 점자도서관으로 개관하였고, 1978년 9월에는 나옹문, 이병돈 등이 「케인즈 클럽」을 조직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녹음도서실을 개설하고 낭독봉사자들의 도움으로 150여종의 녹음도서를 제작하여 서울지역 시각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대출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81년 말에 재정난으로 본회의 업무를 중단하고 소장자료 일체를 한국 맹인서어비스쎈타에 인계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국내의 녹음도서의 개발과 녹음도서관 봉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리고 1983년 정화원에 의해 설립되어 1986년 4월 25일에 개관한 부산맹인도서관은 활자문명으로부터 소외된 맹인들에게 점자 및 녹음도서를 통하여 문자생활을 가능케 하며, 맹인복지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고, 1983년 5월에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부설 점자도서관이 개설되어 자체에서 제작한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와 1984년에 연세대학교 도서관으로부터 인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시각장애인들에게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86년 9월 16일에는 카톨릭 맹인선교회부설 녹음도서관이 개설되어 전국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우편으로 자체 제작한 점자 정기간행물과 녹음도서를 대출해주고 있다.

또한, 1991년 1월에는 서울맹인복지회관 점자도서실이 설립되어 맹인단체(한국맹인복지연합회)가 설립한 유일한 도서관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2월에 개관한 성북점자도서관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서울특별시가 각 구마다 1개관씩의 점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추진한 계획의 첫 케이스가 되었다.

## 2. 자료의 유형

도서는 인류문화의 결정체이며 물질문명의 이기로써 그 효율적인 활용여하는 곧 국가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독서능력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적합한 도서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일은 그들의 재활의욕을 북돋아 주고 정신,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볼만한 책들을 많이 늘리고 이용자가 적극 활용하는 일이므로 도서관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은 어떻게 자료를 계속적으로 보충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에서 자료를 확보해나가는 데는 다음의 네가지 경로가 있다.

첫째, 자체 제작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목자도서를 선택하여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의 제작을

한다.

둘째, 자체 제작 체제를 마련하지 못하고 목자도서를 선택하여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의 제작을 의뢰한다.

셋째, 유상으로 구입한다. 우리나라에는 점자도서를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출판사가 없으므로 자체제작 체제를 마련하여 생산하고 있는 타 점자도서관으로부터 유상으로 구입한다.

넷째, 독지거나 다른 점자도서관으로부터 기증도서를 수집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정안인이 읽을 수 있는 인쇄자료로는 독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독서수단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전맹인을 위해서는 촉각에 의해서 독서할 수 있는 점자도서와 청각에 의해서 독서할 수 있는 녹음도서가 만들어졌고, 약시자를 위해서는 큰 문자도서 등이 만들어졌다.

## 1) 점자도서

점자도서는 요철(凹凸)형의 점자로서 쓰여졌으며 촉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특수한 문자로 제작된 도서를 말한다. 점자의 구성원리는 6개의 점이 한 구성단위를 이루고 있다. 즉 6개의 점의 위치와 갯수의 차이로 문자나 기호를 구성하며 볼록 솟아나와 있는 점을 촉각을 통하여 맹인이 읽게 되는 것이다.

점자도서의 제작과정은 조판, 교정, 인쇄, 제본의 순으로 진행된다.

- 1) **조판** : 정안자가 읽는 일반도서 중에서 도서관의 설립목적이나 이용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점역할 대상도서를 선정하여 두개의 절단한 아연판( $18 \times 26\text{cm}$ )을 제판기에 넣고 제판기의 건반(key board)을 두드려서 대상도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타자하여 점자 원판을 만든다.
- 2) **교정** : 타자된 점역원판은 제 1 교정계로 넘어가 원본과 대조하여 오타여부를 가린 다음 다시 제 2 교정계로 넘겨 다시 자세한 검토를 한다.
- 3) **인쇄** : 교정이 끝난 점자 원판의 사이에 점자지를 끼우고 인쇄기의 로라에 압축시켜 필요한 부수만큼 인쇄해 낸다.
- 4) **제본** : 인쇄가 완료된 점자지들을 한데 모아서 도서의 형태로 제본한다.

## 2) 녹음도서

점자도서는 점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은 독서가 불가능하며, 점역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피가 커지며, 제작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녹음도서의 제작을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녹음도서란 시각장애인이나 책장을 넘기는데 신체적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병상의 환자 등을 위하여 낭독자가 텍스트도서를 낭독하여 레코오드(판)나 카세트테이프에 수록한 것을 말한다.

기존의 텍스트 도서(Talking Book)가 이전에 청취된 부분을 찾기가 불편하고 열에 약하며 표면이 상하기 쉽다는 등의 단점이 있었는데 반해서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녹음도서(Cassette Tape Book)는 시각장애인의 가장 중요한 독서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녹음도서는 점자도서에 비하여 점자해독이 불가능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시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시각장애인들의 가장 중요한 독서수단이 되고 있는데 제작 및 대출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도서의 선정** : 일반 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두 녹음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효율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설립목적과 성격, 이용자의 요구, 대출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2) **도서의 편집** : 선정된 도서를 구입하면 녹음도서가 청각을 통하여 전달된다는 점 때문에 시각적 표현이나 도표 해설 방법을 편집해 주어야 한다. 또한 목차 읽기, 시 읽기 등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어야 한다.
- 3) **낭독자 선정 및 녹음** : 녹음도서는 원저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낭독자의 취향대로 독서 될 가능성성이 있다는 단점 때문에 책의 성격, 자원봉사자의 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녹음하게 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에는 특히 발성법, 낭독의 기술에 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4) **복사 및 서가 배열** : 제작이 완료된 녹음도서는 책의 성격과 이용률을 감안하여 복제한 후 케이스에 담아 서가에 배열한다.
- 5) **대출작업** : 배가작업이 끝난 녹음도서는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대출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점자도서관에서는 정기적으로 목록을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신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출 반납 시에는 우송용 케이스 속의 테이프 이상유무를 반드시 점검하여 이용자가 독서를 함에 있어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는 각기 장단점이 있으므로 점자도서는 정독을 필요로 하는 전문서적의 독서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하며, 녹음도서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학류의 독서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할 것이다.

### 3) **묵자도서**

정안자가 독서할 수 있는 일반도서 중에서 시각장애인용으로 선정된 점자도서관의 장서로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의 유형 중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와는 구분되며 점자도서관에 소

##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

장되어 대면방독봉사용으로 혹은 점역 및 녹음도서의 원본으로 사용하기 위한 도서이다.

### 4) 큰문자도서

보통크기의 활자로 된 일반도서를 읽을 수 없는 약시자 및 고령자를 위하여 대형 활자를 사용하여 정안인이 읽는 글자보다 크고 색깔이 짙으며, 줄과 줄 사이를 넓게 띄우고 제작한 도서이다.

### 5) 디스크트 도서

북자도서의 내용을 컴퓨터 디스크에 수록하여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컴퓨터를 통하여 탐독할 수 있도록 제작된 도서를 말한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중요 자료는 점자도서와 녹음 도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장래의 중요자료의 형태는 디스크트도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소지하고 있으나 도서관 장서용으로는 준비된 곳이 없다.

## 3. 시설 및 장비

시각장애인은 정상인과 비교할 때 도서관 이용상에 많은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정보를 얻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피부감각이나 촉각, 청각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독서를 돕는 보조기구들이 개발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컴퓨터의 영향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비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 점자블럭의 설치 : 도서관 가까운 정류장으로부터 도서관 입구까지 뿐만 아니라 관내의 모든 통로에 설치함으로써 맹인의 도서관이용을 용이하게 해 주어야 한다.
- 2) 맹인용 신호기 : 도서관 가까운 정류장 주변 건널목에 설치함으로 해서 시각장애인의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3) 자동문(출입문) : 도서관출입구의 현관이나 문턱을 없애고 출입문을 자동으로 하며 출입문에는 벨을 부착한다.
- 4) 점자 표시 : 각종 열람실이나 사무실 그리고 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관내의 요소에는 점자표시를 한다.
- 5) 엘리베이트 : 엘리베이트의 사용시에는 조작버튼의 점자안내표시를 설치하고 아울러 녹

음방송을 통해 정지된 충수를 알려주어야 한다.

- 6) 음성변환 컴퓨터 : 전맹자 보조기로서 일반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변환 시켜줌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독서를 용이하게 해주며, 그 결과는 점자 인쇄물로 나오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보조기구이다. 그러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널리 보급 되지 못하고 있다.
- 7) 컴퓨터 프린트 : 맹인용(음성변환)컴퓨터에 입력된 내용의 출력은 화면을 음성으로 나타나거나 프린트를 통하여 점자로 인쇄되어 나오게 되는데 컴퓨터의 처리 결과를 종이(모조지 120g/m<sup>2</sup>)에 점자로 인쇄해 주는 장치로서 일반 잉크 프린터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프린트는 개인용과 업무용이 있으며 개인용은 인쇄속도가 시간당 10장정도이며, 업무용은 시간당 600장의 인쇄가 가능한 것으로 대량의 인쇄가 필요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다.
- 8) 옵타콘(Optacon = Optical to Tactile Converter) : 1970년 린빌(John G.Linvil)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시각적인 매체를 촉각적인 매체로 전환시켜 맹인이 일반도서를 읽는 것을 가능케한 기구로서 이용자가 작은 촉각스크린(Tactile Screen)에 한쪽 손의 집게 손가락을 얹어 놓는 동안 인쇄물의 라인을 지나가는 카메라를 움직임으로써 그 상이 작은 촉각스크린에 재생된다. 옵타콘은 휴대하고 다니며 책을 읽을 수 있으나 독서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이다.
- 9) 확대기 : 약시자들을 위한 독서보조기구로서 인쇄된 일반도서를 읽기 위해 특별히 만들 어졌으며 손으로 잡고 쓰는 확대기(Hand Held Magnifier), 책상에 붙어 있는 확대기(Magnifier on Stand), 한번에 한 행을 읽을 수 있는 확대기 (Strip Magnifier), 스크린확대기(Opaque), 그리고 보이저(Voyager)등이 있다.
- 10) 점자 타자기 : 일반타자기와는 달리 Key board가 6개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6개의 key와 2개의 명령어 key를 합쳐서 도합 8개의 key로 구성되어 있는 맹인용 타자기로서 일반도서를 점역하기 위한 것이지만, 점자 제판기에 의해서 대량으로 제작되는 점자도서에 비하여 점자타자기에 의해 점역되어 만들어진 점자도서는 여러 권의 복사가 불가능하고 단 한 권만이 책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도서의 보급을 이에 의존할 수는 없다.
- 11) 광학문자 탐독기(OCR = Optical Character Reader) : 지능문자 탐독기라고도 불리어지는 것으로서 일반문자를 Scan하면서 그 문자들에 일정한 양의 빛을 투영하여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 그 문자들을 감지하는 기기이다.
- 12) 기타 : 그 외에도 점자표시가 되어있는 도서판안내도, 점자벽시계 등의 부착이 필요하다.

### III. 실태 분석

#### 1. 도서관의 설치

1998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을 위해 도서관봉사를 실시하는 곳은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20개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14개관, 부산직할시에 2개관, 대구광역시에 1개관, 경상북도에 1개관, 경기도에 1개관, 전라북도에 1개관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면, 대부분의 도서관(70%)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도 지역은 전무한 실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설치는 지역적으로 그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쉽게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별 분포에 차이가 크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보다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마련되지 못한 때문으로써 각 도서관이 각기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가차원의 계획 및 조정이 모색되지 않는 한 그 개선은 난망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 소재지별 현황

지역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계
도서관 수	14	2	1	1	1	1	20

#### 2. 시설규모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열람실의 규모에 관해 살펴보면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평 이하가 5개관, 11평 이상 15평 이하가 6개관, 16평 이상 20평 이하가 1개관, 21평 이상 25평 이하가 2개관, 26평 이상 30평 이하가 1개관, 31평 이상이 5개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열람석수는 5석 이하가 4개관, 6석 이상 10석 이하가 7개관, 11석 이상 15석 이하가 4개관, 16석 이상 20석 이하가 3개관, 21석 이상이 2개관으로 나타난다.

〈표 2〉 열람실 면적

면적	10평 이하	11평 - 15평	16평 - 20평	21평 - 25평	26평 - 30평	31평 이상	계
도서관 수	5	6	1	2	1	5	20
좌석 수	5석 이하	6석-10석	11석-15석	16석-20석	21석 이상		계

〈표 3〉 열람석 수

좌석 수	5석 이하	6석-10석	11석-15석	16석-20석	21석 이상	계
도서관 수	4	7	4	3	2	20
면적	10평 이하	11평 - 15평	16평 - 20평	21평 이상		계

이처럼 열람실 면적과 열람석 수가 영세한 이유는 이용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관내열람봉사보다는 우편대출봉사를 주로 요구하기 때문에 관내 열람에 필요한 열람석수와 면적의 조정 탓으로 사료된다.

### 3.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표 4>에서 이용자의 독서를 용이하도록 해주는 장비의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음성변환컴퓨터를 보유한 곳이 1개관, 점자컴퓨터를 보유한 곳이 7개관, 옵티콘을 보유한 곳이 2개관, 점자타자기를 보유한 곳이 14개관, 광학문자탐독기를 보유한 곳이 1개관, 문자확대기를 보유한 곳이 4개관으로서, 대체로 이용자의 독서를 위한 장비보유현황은 점자타자기를 제외하고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이용자의 독서를 위한 장비보유현황

장비별	음성변환 컴퓨터			점자컴퓨터			옵티콘			점자타자기			광학문자 탐독기			문자확대기		
	보 유	미 보 유	계	보 유	미 보 유	계	보 유	미 보 유	계	보 유	미 보 유	계	보 유	미 보 유	계	보 유	미 보 유	계
구 분	1	19	20 개 관	7	13	20 개 관	2	18	20 개 관	14	6	20 개 관	1	19	20 개 관	4	16	20 개 관
도서관수																		

####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

또한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관 방문 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시설의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점자안내도를 설치한 곳이 1개관, 점자시계를 설치한 곳이 1개관, 관내 요소별로 점자표시를 한 곳이 18개관, 자동출입문을 설치한 곳이 2개관, 점자블럭을 설치한 곳이 6개관으로써 열람실이나 사무실 그리고 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포함하여 관내의 요소 요소에 점자 표시를 하는데는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나 시각장애인들의 도서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그 밖의 시설의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5〉 도서관이용시설의 설치 현황

종류	점자안내도			점자 시계			관내요소 별점자표시			자동출입문			맹인용 신호기			점자 블럭		
구 분	설 치	미 설 치	계	설 치	미 설 치	계	설 치	미 설 치	계	설 치	미 설 치	계	설 치	미 설 치	계	설 치	미 설 치	계
도서관수	1	19	20 개 관	1	19	20 개 관	18	2	20 개 관	2	18	20 개 관	0	20	20 개 관	6	14	20 개 관

그리고 <표 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점자도서의 제작을 위해서 제판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5개관, 점자인쇄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8개관, 제본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7개관, 점자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7개관으로 나타나며, 녹음도서의 제작을 위해서 녹음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11개관, 카세트복사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15개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점자도서의 제작을 위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수에 비하여 녹음도서의 제작을 위한 장비를 보유한 도서관 수가 더 많은 이유는 설립 기간이 짧거나 영세한 도서관들이 자료 제작을 위한 설비비가 적게 드는 장비 보유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표 6〉 자료 제작을 위한 장비보유 현황

종 류	제판기			점자인쇄기			제본기			점자컴퓨터			녹음실			카세트 복사기		
구 분	보 유	미 보 유	계	보 유	미 보 유	계												
도서관수	5	15	20 개 관	8	12	20 개 관	7	13	20 개 관	7	13	20 개 관	11	9	20 개 관	15	5	20 개 관

#### 4. 자료의 구성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는 크게 점자도서, 녹음도서, 큰문자도서, 묵자도서, 디스켓도서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디스켓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개관도 없으며, 큰문자도서와 묵자도서는 소수의 도서관에 소규모의 양이 소장 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자도서와 녹음도서에 한해 도서관별 보유규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점자도서의 보유규모를 <표 7>에서 살펴 보면, 100종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5개관, 101종 이상 200종 이하가 5개관, 201종 이상 300종 이하가 3개관, 301종 이상 400종 이하가 2개관, 601종 이상 700종 이하가 3개관, 그리고 1,001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2개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녹음도서의 보유규모를 표.8에서 보면, 100종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3개관, 101종 이상 200종 이하가 1개관, 201종 이상 300종 이하가 5개관, 301종 이상 400종 이하가 3개관, 401종 이상 500종 이하가 1개관, 501종 이상 600종 이하가 2개관, 701종 이상 800종 이하가 1개관, 그리고 1,001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4개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규모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는 빈약할 것으로 사료되며, 점자도서의 보유규모에 비하여 녹음도서의 보유규모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료 제작장비의 보유규모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7> 소장자료의 규모

규모	100종 이하	101종-200종	201종-300종	301종-400종	401종-500종	501종-600종	601종-700종	701종-1,000종	1,001종 이상	계
도서관 수	5	5	3	2	0	0	3	0	2	20개관

<표 8> 녹음도서의 보유규모

규모	100종 이하	101종-200종	201종-300종	301종-400종	401종-500종	501종-600종	601종-700종	701종-1,000종	1,001종 이상	계
도서관 수	5	5	3	2	0	0	3	0	2	20개관

## 5. 자료의 이용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모두가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각장애인을 회원으로 등록하고 나서 소장자료를 이용시키고 있다.

각 도서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규모는 <표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명 이하인 곳이 8개관으로서 전체도서관의 40%를 차지하며, 201명 이상 500명 이하인 곳이 3개관, 501명 이상 1,000명 이하가 2개관, 1,000명 이상 1,500명 이하가 4개관, 그리고 2,001명 이상이 3개관으로 나타난다.

<표 9> 이용자의 규모

이용자 수	200명 이하	201명-500명	501명-1,000명	1,001명-1,500명	1,501명-2,000명	2,001명 이상	계
도서관 수	8	3	2	4	0	3	20

한편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방법을 표.10 에서 살펴보면, 도서관자료는 전적으로 우편대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내 열람, 대면낭독, 방문낭독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0> 자료 이용 방법

방법	우편 대출	관내 열람	대면 낭독	방문 낭독	계
도서관 수 (가중치)	80	57	40	23	200

\* 가중치는 반응의 강도가 가장 높은 항목에 총 항목 수와 동일한 점수(4점)를 부여하고 가장 낮은 반응에 1점을 부여 한다.

<표 11> 점자도서에 대한 녹음도서의 이용비율

녹음도서 이용비율	1	2	3	4	5	6	7	8	9	10	계
도서관 수	3	2	0	4	5	0	2	0	2	3	20 개관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자료간의 이용비율은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음도서와 점자도서가 동일한 비율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 3개관, 녹음도서가 점자도서보다 2배정도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2개관, 4배 정도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4개관, 5배 정도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4개관, 7배 정도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2개관, 9배 정도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곳이 2개관, 그리고 10배정도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는 도서관이 3개관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소장자료 중에서 전통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로 인식되었던 점자도서의 이용규모가 오히려 녹음도서의 이용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통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점자도서보다는 청각을 통해서 쉽고 편하게 독서 할 수 있는 녹음도서를 더 선호하는 때문으로 여겨진다.

## 6. 직원 현황

효율적으로 도서관봉사를 펼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직원 수의 확보문제와 직원이 자신의 직무에 얼마만큼이나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장래를 점쳐 볼 수 있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개관 당 평균 6.9명(총 138명/20개관)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총 20개관 138명의 직원중 사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총 20명 (자격증 소지자 15명, 미 소지자 5명)으로써 1개관 당 1명씩을 확보하고 있고, 그 외에 점역사 26명, 교정사 20명, 인쇄요원 28명, 사회복지요원 16명, 녹음도서 제작담당자(낭독지도원 10명, 녹음실모니터 6명) 16명, 기타(기사, 용원 등)를 12명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2〉 직원 현황

유형	사서		점역사	교정사	인쇄사	사회복지 요원	낭독지도 요원	녹음실 모니터	기타	계
	유자격	무자격								
직원 수	15	5	26	20	28	16	10	6	12	138명

이처럼 자료실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 1명으로서는 전담사서 수의 부족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효과적인 봉사를 펼치기에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으로 사료되며, 많은 도서관들이 이용자에게 자료를 이용시키는 업무 외에 자료의 제작 및 보급업무에도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역할

## 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0권 제4호)

이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확보문제는 직원의 충분한 확보문제와 함께 도서관 봉사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표 13〉 자원봉사자의 수

인원 수	10명 이하	11명-50명	51명-100명	101명-150명	151명-200명	201명 이상	계
도서관 수	3	6	2	3	2	4	20개관

〈표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0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는 영세한 도서관이 3개관, 11명 이상 50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이 6개관, 51명 이상 100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이 2개관, 101명 이상 150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이 3개관, 151명 이상 200명 이하를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이 2개관으로 나타나며, 비교적 많은 201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는 도서관도 4개관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각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수의 규모는 각 도서관의 규모와 역사 그리고 그 활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한 도서관일지라도 그것이 등록된 인원 일 뿐 실제 가동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는 점이다.

## 7. 직무만족도

열람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대한 것을 〈표 14〉에서 살펴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식은 문헌정보학의 배경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각, 점자해독능력, 특수교육학의 배경, 재활과학의 배경을 들고 있다. 따라서 담당직원은 도서관학을 전공한 사서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있으며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자가 가장 이상적이라 하겠다.

〈표 14〉 담당직원의 자질

자질	문헌정보학 배경	특수교육학 배경	재활과학 배경	점자해독 능력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각	계
도서관 수 (가중치)	92	47	27	56	78	300점

\* 순위 측정을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것임.

한편, 직접 봉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서들의 직무 만족도를 <표 15>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전체 75%)의 사서들이 현 직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사서의 직무만족도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불만스러운 편이다	매우 불만이다	계
도서관 수		2	3	10	5	20

그리고 그 불만 이유를 <표 16>에서 살펴보면, 봉급 및 수당문제를 가장 큰불만의 요인으로 여기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근무환경 및 조건, 승진 및 승급의 순 이었으며, 그리고 적성이나 보람을 느끼는 문제에는 큰불만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6〉 직무불만요인

불만 요인	봉급 및 수당	승진 및 승급	근무환경 및 조건	적성 및 보람	계
도서관 수 (가중치)	78	40	55	27	200점

※ 순위의 측정을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것임.

이처럼 사서에게 요구되는 자격 및 자질은 도서관학의 배경 외에도 여러 가지가 요구되고 있는데 비하여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없음은 사서의 직무의욕을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사서의 직무의욕 저하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가 어떻게 펼쳐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를 파악하여 장

##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래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구성하여, 본 연구자가 직접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도서관들을 방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도서관은 대부분(70%)이 서울특별시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역적으로 그 분포가 고르지 못하며,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된다.

둘째,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에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수가 빈약하고 자료의 주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도서관이 자료 제작장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아니라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각장애인의 자료는 주로 점자도서와 녹음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시각장애로 인하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관내 열람봉사 보다는 우편에 의한 대출봉사를 주로 실시한다.

다섯째, 열람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각이 있으며,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자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날 시각장애는 거의 대부분 (93.5%)이 출생 후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 원인의 대부분이 녹내장, 백내장 등의 질병에 의한 것이었고 그 밖의 전쟁이나 재해, 그리고 원인미상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 수록 장애 출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정상인이 내일의 시각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상인을 위한 도서관정책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관심 깊은 배려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김동년, 김태욱. 점자발달의 과정. 대구, 한사대학출판부, 1981, p. 323.

김영귀, 손문철.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제13집, (1986). pp.29-58.

박옥화. “장애자를 위한 공공도서관 봉사에 관한 연구 ; 시각장애자를 중심으로” 논문집(충남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1권, 제2호, (1984). pp. 439-451.

설진화. “시각 장애자에 대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1988.

- 이상근.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수도서관봉사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 사회사업대학 대학원) 1977.
- 이총재. "시각장애자에 대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8.
- 장애인복지법(법률 제4179호) 1989. 12. 30 개정
- 전재봉.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미치는 영향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2.
- 조종석. "한국의 맹인도서관 실태 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1990.
- 최규봉. "한국 시각장애인 도서관의 현황 분석" 석사학위논문(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특수교육전공) 1991.
- 加藤善徳 "日本點字圖書館 40年 をふり返 つて," 圖書館雜誌 vol.75, no.1(1981.1). pp. 11-22.
- 渡邊勲. "身體障礙者への 圖書館サービスの現状 と 問題點" 現代の圖書館, vol.13, no.3 (1975.9) pp. 85-91.
- 本間一夫 岩橋英行, 田中農夫男 共編 點字 と 朗讀への 招待 東京, 福村出版, 1983.
- 前田章夫. "障害者サービスの到達点 と これからの文題" 圖書館雜誌, vol.75, no.1, (1981.1) pp. 19-31.
- 田中章治. "身體障害者への圖書館サービス," 圖書館雜誌. vol.70, no.1 (1976.1) pp. 28-41.
- 樽谷明. "障害者サービス盲人司書の必要" 圖書館界. vol.32, no.2, (1980.6) pp. 75-89.
- Cylke, F.K. and Deshere, A.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ices for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Readers."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5. no.4, (1979). pp. 267-289.
- DeVeaux, Patricia Ann. *Academic Library Service To Handicapped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PH.D. Dissertation, George Peabody College for Teachers. 1982.
- Eunice, Lovejoy. "Library service to Handicapped People and the Role of the Advisory Committee." *Public Library Quarterly*. vol.1, no.4, (1979). pp. 377-386.
- Jacobson, Barbara. *History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1895-1969*. M.S. Dissertation, Palmer Graduate Library School, (1971).
- Library of Congress. *An Introduction to the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Washington D.C., Library of Congress, 1982.
- Judd, P. M. "The Library and Information Needs of Visually Handicapped Students : A Survey of the Problems with Some Suggestions for Academic Library Policy" *Journal of the Librarianship*. vol.9, no.2, (1997). pp. 91-107.
- Prescott, Katherine. "New Standards for Library Service to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 *Catholic Library World*. vol.52, no.4, (1980). pp. 167-191.
- Vinson, Rhonda. *School Library Media Center Service For Handicapped Students 1958*. PH.D.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1980.

2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부록 1〉

도서관 명	주 소	개관 일자	전화번호
갈보리교회 장애인열람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6	1987. 10.	02-546-9036
강북점자도서관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4-21	1992.10.15	02-985-3664
대구대학교 부설 점자도서관	경북 경산시 진량면 내리리 15	1981.6.1	053-850-5481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점자도서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3-1	1978.2.23	02-290-6773
동작구 점자도서관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95	1992.9.1	02-841-2077
마포점자도서관	서울시 마포구 망원2동 451-1	1992.7.31	02-388-0180
부산맹인복지관	부산시 북구 구포3동 1254-3	1992.11.23	051-338-0017
부산맹인점자도서관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11-20	1983.9.5	051-626-9010
부천점자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100-2	1992.3.3	032-652-9963
산소망선교회녹음도서관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272-2	1988	02-455-3050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09	1971	02-422-8108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527-2	1993.12.21	02-299-0701
성북점자도서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4가 297-1	1992.7.3	02-923-4555
은평점자도서관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1-1	1992.12.1	02-387-1672
문화예술사업소 장애인열람실	전북 익산시 마동 57-4	1994.10.20	0653-857-7488
포도나무맹인선교회	대구시 남구 대명10동 1225-48	1987.1	053-623-9886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3동 12-48	1982.9	02-451-6000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맹인도서관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1990.12.11	02-934-7561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점자도서관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6	1983.5	02-427-9111
한국점자도서관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10-23	1969.12.10	02-3426-7411

〈부록 2〉

질 문 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선생님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아래 문항에 대하여 솔직한 답을 0표로 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1998년 8월 일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재봉 올림

\* 도서관 명칭 :

\* 도서관 주소 :

\* 설립 일자 :

\* 작성자 직함 :

\* 전화 번호 :

1. 귀 도서관 열람실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 ( ) 10평 이하      ( ) 11평 - 15평      ( ) 16평 - 20평  
( ) 21평 - 25평      ( ) 25평 - 30평      ( ) 31평 이상

2. 귀 도서관의 열람석 수는 몇 석입니까 ?

- ( ) 5석 이하      ( ) 6석 - 10석      ( ) 11석 - 15석  
( ) 16석 - 20석      ( ) 21석 - 25석      ( ) 25석 이상

3. 귀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장비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음성변환 컴퓨터 ( ) 대,      점자타자기 ( ) 대  
점자 컴퓨터 ( ) 대,      광학문자탐독기 ( ) 대  
옵티콘 ( ) 대,      문자 확대기 ( ) 대  
기타 : 구체적으로 ( )

4. 귀 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도서관이용을 위한 시설로서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 ( ) 점자안내도      ( ) 맹인용 신호기  
( ) 점자타자기      ( ) 점자블럭

2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4호)

기타 : 구체적으로 ( )

5. 귀 도서관에서는 어떤 유형의 자료 제작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 제판기 ( ) 점자 인쇄기

기타 : 구체적으로 (

6. 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 점자도서      ( ) 녹음도서      ( ) 墨字도서

( ) 큰 문자도서      ( ) 디스켓자료      ( ) CD-ROM자료

기타 : 구체적으로 ( )

7. 귀 도서관의 점자도서 소장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 ) 100종 이하      ( ) 101종 - 200종      ( ) 201종 - 300종

( ) 301종 - 400종      ( ) 401종 - 500종      ( ) 501종 - 600종

( ) 601종 - 700종 ( ) 701종 - 800종

( ) 901종 - 1,000종    ( ) 1,001종 이상

귀 도서관의 시각장애인 실의 녹음도서의 소장규모는 어느 정도 입니까?

( ) 100종 이하      ( ) 101종 - 200종      ( ) 201종 - 300종

( ) 301종 - 400종      ( ) 401종 - 500종

( ) 601종 - 700종      ( ) 701종 - 800종      ( ) 801종 - 900종

( ) 901종 - 1,000종 ( ) 1,001종 이상

귀 도서관에 등록된 회원의 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 ) 200명 이하      ( ) 201명 - 500명      ( ) 501명 - 1,000

( ) 1,000명 - 1,500명 ( ) 1,501명 - 2,000명 ( ) 2,001명 이상

## . 귀 도서관에서는 자료의 이용

(우선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우편대출       관내열람

11. 귀 도서관에서는 접자도서에 비하여 녹음도서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집

12. 현재 귀 도서관에는 어떤 유형의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서 ( )명, 점역사 ( )명, 교정사 ( )명, 인쇄요원 ( )명,  
사회복지요원 ( )명, 낭독지도요원 ( )명, 녹음실모니터 ( )명,  
기타 : 구체적으로 ( )

13. 귀 도서관에는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 10명 이하, ( ) 11명 - 50명, ( ) 51명 - 100명  
( ) 101명 - 150명, ( ) 151명 - 200명, ( ) 201명 이상

14. 열람 및 대출 담당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 ) 문헌정보학의 배경  
( ) 특수교육학의 배경  
( ) 재활과학의 배경  
( ) 점자 해독의 능력  
( )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감각능력

기타 : 구체적으로 ( )

15. 선생님께서는 현재의 직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 매우 만족한다.  
( )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 ) 그저 그렇다.  
( ) 대체로 불만스러운 편이다.  
( ) 매우 불만스럽다.

16. 만약 불만스럽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 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 ) 봉급 및 수당의 문제  
( ) 승급 및 승진의 문제  
( )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 ) 적성이나 보람을 못 느끼는 문제

기타 : 구체적으로 ( )